

Diversitas

2022 통영국제음악제

다양성 토크 콘서트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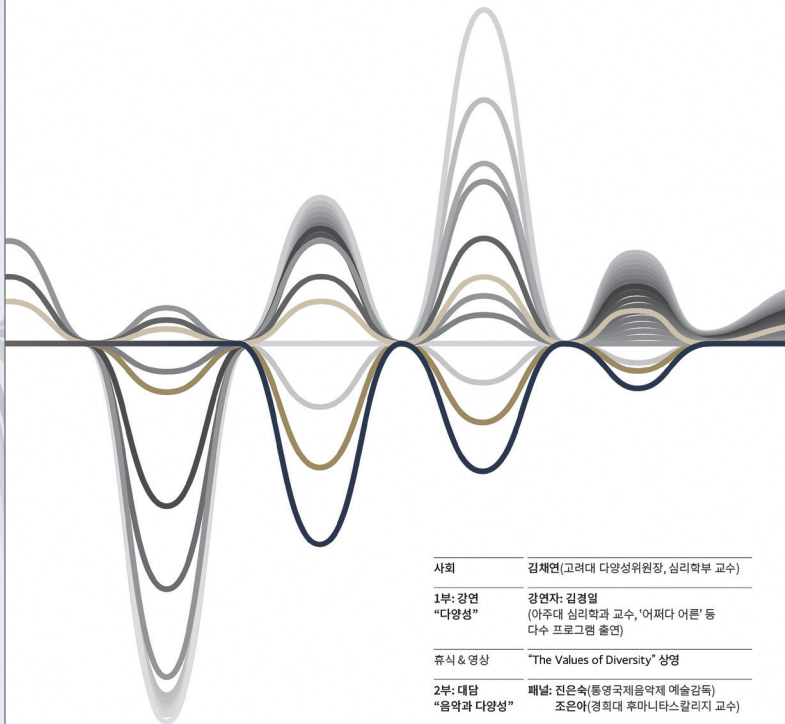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A DIVERSE HARMONY

22.04.01(FRI) 4PM

통영국제음악당 2층 리허설 룸



사회	김재연(고려대 다양성위원장, 심리학부 교수)
1부: 강연 "다양성"	강연자: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어쩌다 어른' 등 다수 프로그램 출연)
휴식 & 영상	"The Values of Diversity" 상영
2부: 대담 "음악과 다양성"	패널: 진은숙(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조은아(경희대 후마니타스윌리지 교수)

A Diverse Harmony:

2022 통영국제음악제 다양성 토크 콘서트

일시	2022년 4월 1일 오후 4시
장소	통영국제음악당 리허설 룸
사회자	김채연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심리학부 교수)
1부 강연	김경일(인지심리학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2부 대담	진은숙(작곡가,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조은아(피아니스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사회자

다양성 토크 콘서트, 'A Diverse Harmony'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채연입니다.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2019년, 국내 사립대학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이래, 다양성 교육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해 가기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2022 통영국제음악제의 주제인 'Vision in Diversity'와 만나 오늘의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관객 여러분들과 우리 사회, 특히 문화 예술 영역에서의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크 콘서트는 1부 다양성 강연과 2부 음악과 다양성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다양성의 의미를 담은 짧은 영상이 상영됩니다.

1부 - 강연

D&I의 심리학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이
역량인 이유에 대해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2부 - 대담

음악에서의 다양성

진은숙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조은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부 - 강연

D&I의 심리학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이
역량인 이유에 대해

사회자

오늘 강연을 해 주실 김경일 교수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인지심리학자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인간의 판단, 의사 결정, 문제 해결과 창의성에 대해 연구해 오셨고,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여러 주제들에 대중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다양성은 미덕 아니라 역량

김경일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학자인데요, 김채연 교수님이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서 청하셨으면 바쁘다고 살짝 거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국제음악제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최근 한 5~6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의 모든 외국계 기업의 요청을 살펴보니 다양성과 포용성, Diversity와 Inclusion, 보통 D&I로 줄여 말하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IT기업에서부터 정유 회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본사 헤드쿼터의 오더를 받아서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 강의, 교육, 혹은 프로젝트를 해 달라고 요청해 왔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 다양성과 포용성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다양성과 포용성은 정말 21세기에 필요한, 중요한 역량인 게 맞더라고요.

왜 다양성을 미덕이 아니라 역량으로 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다양성과 포용성, 그 중에서도 특히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어째서 그것이 민주 사회, 민주 시민의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이어질 역량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술의 영역까지 치고 들어온 AI

저는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에 주목해 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인간이 계속 패배해 왔습니다. 1967년에 MIT 출신 해커가 만든 체스 프로그램 ‘맥핵(MacHack)’에 아마추어 체스 선수가 지면서 인간이 인공지능(AI)에 처음으로 패합니다. 이후 1989년에 IBM이 체스 전용 컴퓨터 ‘딥 소트(Deep Thought)’를 만들었고 이후 ‘딥 블루(Deep Blue)’에 이어 ‘딥 퍼 블루(Deeper Blue)’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결국은 천재 체스 챔피언인 러시아의 가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를 2승3무1패로 이깁니다. 2011년에는 IBM이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Watson)이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2014년에는 러시아 연구진이 개발해 ‘유진 구스트만(Eugene Goostman)’이라고 이름 붙인 챗봇(chatbot)에게 사람들이 속지요.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기계인지 모른 것입니다. 또 2016년에는 드디어 전국민이 이세돌 9단의 목소리가 얼마나 독특한지 알게 되

는 구글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4승1패로 알파고의 우세였습니다.



출처: 저자 제공

이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2016년에 각 대학 예체능 계열의 커트라인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당시 예술 교육을 하는 대학의 입학처장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인공지능이 예술은 못하겠지.’ 하고 생각해서 미술과 음악 관련 학과의 경쟁률과 커트

라인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전장을 냅니다. 드로잉 머신인 ‘넥스트 렘브란트(Next Rembrandt)’를 만들어서 렘브란트의 그림 372장을 학습시킨 뒤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렘브란트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대의 렘브란트부터 60대의 렘브란트까지 다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죠. 붓으로 덧칠하는 패턴, 잘못되었을 때 살짝 손끝으로 고치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1만 배 이상 좋아졌답니다. 끔찍한 세상이 왔죠.



인공지능이 따라 그리지 못하는 피카소

하지만 인공지능이 못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카소 그림입니다. 피카소는 화가로서 자기 인생의 절반 가까이 주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일반적인 구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물을 분석하고 나눈 뒤 다시 겹쳐 조합하는 입체파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는 많이 학습하면 할수록 피카소의 그림을 못 그립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다양하게 합쳐 놓고 AI에게 학습을 시키면, 이상한 걸 만들어 냅니다. 무지개 패턴이나 랜덤 패턴 같은 것을 그리죠. 우리가 볼 때에는 누가 봐도 피카소의 그림인데,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 AI가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Dept. of Psychology, Ajou Univ.

AI가 학습한 렘브란트



Dept. of Psychology, Ajou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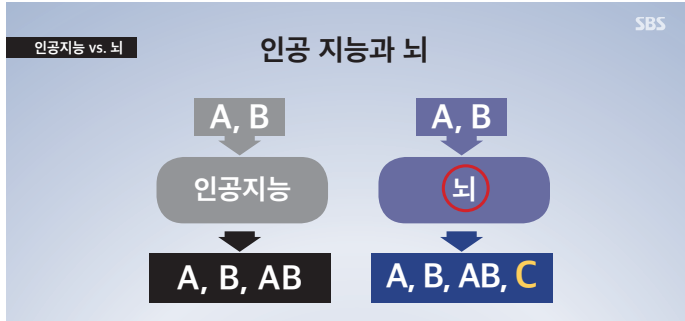
AI가 따라 그리지 못한 피카소

AI는 A와 B를 열심히 학습해서 필요할 때 A, B를 정확하게 내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A와 B를 열심히 경험하거나 학습한 뒤에 A와 B가 아니라 C라고 합니다. AI가 레브란트를 학습할 수 있지만 피카소를 학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 C는 무엇이나? 완전히 새로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C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PDA, 디지털카메라, 전화기를 합쳐서 사실 전화기 기능이 추가된 PDA인데, 이것 스마트폰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이죠. 그건 제가 보기에 C를 만든 것이라기보다 C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혁신가라고 합니다. ‘아, 뭐지?’라고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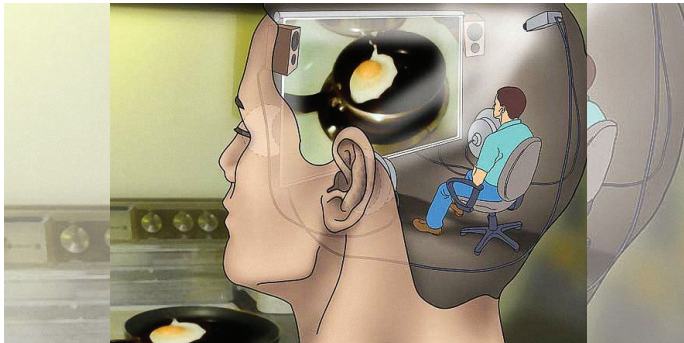
글자를 조금 비틀거나 모양을 다소 변형시키면 어린아이들은 읽을 수 있지만 AI는 읽지 못합니다. 자동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면서 ‘7K12B’같이 숫자와 문자를 찌그러뜨려 놓은 걸 읽고 적어 넣게 하잖아요? AI는 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에버리지(average), 즉 평균을 쫓아가거든요. 수많은 A와 B를 경험하면서 가장 평균적인 A와 가장 평균적인 B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경험이 많아질 수록 유니크(unique) 즉 자신만의 특징을 찾아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틀을 깨는 인간 vs. 틀 안에서 움직이는 AI

Data 안에서만 답을 도출 vs 비판적 수용으로 새로운 답 창조



메타인지 (meta-cognition)



같은 지식을 공부하는데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죠. 피카소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메타인지(meta-cognition)였습니다. 인지는 생각이고 메타는 더 위에 있다는 뜻인데, 내가 나를, 또 내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아주 잘 쌓아 온 지식과 기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혹은 AI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양성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다양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최상위 0.1%의 무기, 다양성과 포용성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양성입니다. 나와는 완전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다양성과 포용성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상위 0.1%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EBS와 함께 <0.1%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도록 해 주는 부모나 어른, 또 선배를 만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된 계기 일 것입니다. 당시에 전국의 문·이과 고등학생 62만 5천 명 중 모의고사 700등 안에 들어가는 0.1%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것 같은 집 아이들은 뻘습니다. 아이가 해야 할 고민을 부모가 끊임없이 친절하게 해주면 그 아이는 보통 바보가 되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고 좋은 대학에 갔는데 어른이 될수록 뭔가 이상하고, 단순하고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스카이 캐슬> 같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형적으로 암기만 잘 하는 아이들이 있죠. 논리, 연산, 추리 같은 능력은 없고 암기만 잘하는, 시험을 위해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저도 그런 친구를 한 명 압니다. “이게 답이 뭐냐?”고 물으면 “루트 2.” 하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생겼어” 합니다. 그 아이는 문제를 1만 5천 개 정도 그냥 다 본 거예요. 정말 논리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데, 하나 쓸모가 있었어요. 전화해서 “그 집 짜장면 얼마냐?”고 물으면 “4,500원.”, “그 집 코스 요리는 얼마냐?”고 하면 “27,500원, 봉사료 10%는 뺀 거다.” 하고 바로 답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는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빼고 5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보았습니다. 부모의 학력, 부모의 소득, IQ 차이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무엇이나? 나와 엄청 다른 아이들의 질문에 도 대답한다, 이것만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이잖아요. 산술적으로 전국에서 4년제 대학 입시와 관련 있는 고등학교가 2,500개 정도이니까 전국에서 50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전교 1등이 아니라 고등학교 5개를 합친 중에 1등, 그러니까 최소한 그 동네에서는 지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

여 준 유일한 차이는 자기가 전교 1등인데, 전교 꼴찌가 말을 걸어도, 그리고 뭘 물어봐도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답을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양육했는지 알아보니, 부모님들이 특별히 위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 아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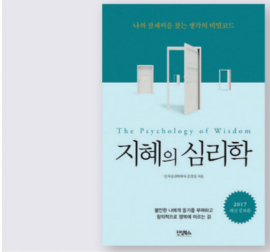
“너보다 잘 모르는 아이가 와서 질문을 해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 어, 엄마는!” “아빠는 그런 아이들을 존중했으면 좋겠어. 뭘 물어본다 는 것처럼 용기가 필요한 일이 세상에는 별로 많지 않아.”

26

이것이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부모님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포용성은 최고의 성장을 만든다

Wisdom 10



대한민국
상위 0.1%
학생의 비밀

Dept. of Psychology, Ajou Univ.

다양성과 포용성, 뛰어난 전문가를 만드는 원동력

그런데 공부를 해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전교 2, 3등한테 설명해 주는 것보다 전교 꼴찌에게 설명하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전교 2, 3등은 “이래서 Y잖아.” 하면 “아, 그러면 다음은 X제공이겠구나.” 하고 말 안 한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교 꼴찌는 “아, 그 X옆에 있는 2는 왜 그렇게 쪼끄매?”하고 묻습니다. “3년 동안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어.”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0.1%의 아이들은 그 제곱을 나타내는 2가 왜 작은지 답을 해 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아이가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당시 한창 만들어지던 위키피디아를 찾아보고, 주말에 『수의 기원』이라는 책을 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훑어보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 여정만으로 이미 엄청난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말에 의하면 수많은 링크들을 열며 따라가다 보니 실제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200~300년 전 수학 공식이 만들어

질 때에는 수학자들이 엄청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다들 부업을 했는데, 많이 했던 일이 시계 고치는 일이었고요. 정말 장치인 시계의 역학적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별자리를 많이 배웠고, 천문학적인 개념도 들어가서 위 첨자, 아래 첨자, 별, 땅 이런 개념이 계속 수학에서 표현되었답니다. 그 아이가 그걸 설명하는데 수학 선생님 세 명이 뒤에서 “와~대박!”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차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가진 엄청난 태도입니다.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도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내친김에 제작진과 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나사와 독일의 막스 플랑크(Max Planck), 우리나라의 여의도 등을 가 보며 뛰어난 전문가와 평범한 전문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노력, 즉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식, 경험, 노력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었지만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데, 왜 그런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AI가 대체할 사람이 바로 평범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verage에 딱

맞아서 도식처럼 답을 내는 분들이죠.

AI가 대체하지 못할 뛰어난 전문가, 창조적인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이 두 가지가 뛰어난 전문가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것이지요.

왜냐? 나와 관계없는 분야의 사람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내 말 속에서 두 가지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에게는 친숙한 전문 용어와 약어입니다. 그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인간은 자신이 그때까지 쌓아 온 분야의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지혜로 리포맷(reformat) 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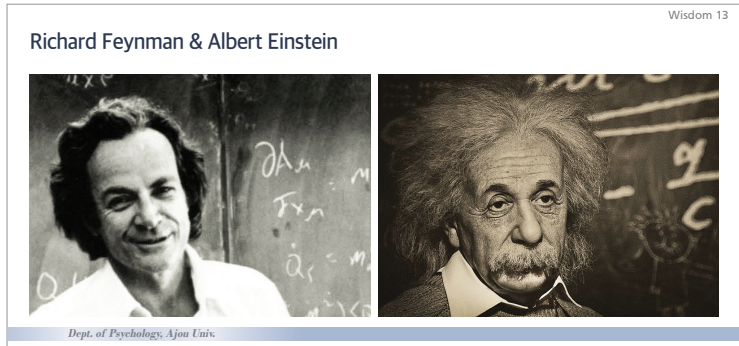


다양한 타인과 끊임없는 소통이 혁신의 길

1979년에 코닥에서 일하던 스티븐 사순(Steven Sasson)이라는 사람이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질’이라는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매일 만드는 필름에 대해서 6살짜리에게 설명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연구실에 돌아오니 세상의 소리를 담는 그릇도 보이더라고요. 카세트 테이프였죠. 그리고 ‘카메라 렌즈에서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이라는 그릇으로만 가야 하지?’ ‘같은 그릇이니 카세트 테이프라는 그릇으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쳐서 ‘그 둘을 붙여 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우리 인류사는 이런 식으로 진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가면 톱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마케터들이 자신이 만들고, 개발하고 파는 물건을 근처의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까지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다양성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재능 기부, talent donation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것을 talent partnership이라고 부릅니다. Give and take, 즉 설명하면서 얻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함께 20 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입니다. 파인만의 IQ는 120대로 아인슈타인과는 60이나 차이가 났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손꼽힌, 뛰어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둘은 모두 대학 학부 1학년생, 심지어 고등학생들에게도 자주 물리학을 가르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질문을 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동네 마트 캐셔(cashier)나 소방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물리학을 가르쳤답니다. 전문용어와 약어를 쓸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신들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위대한 두 명의 물리학자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분야, 내게 친숙한 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영국제음악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도 이야기하고 음악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심리학을 설명하고, 또 그분들에게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일을 일반화시키고, 거리를 두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면서 서로가 몰랐던 통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뮤지카과르텟이라는 연주자분들과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도스토예프스키를, 그분들은 차이코프스키를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주제로 연주하고, 저는 차이코프스키에 대해 말을 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좀 생소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각자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던 거죠.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AI가 갖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그것을 한번 가져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넛지와 감각을 이용해 다양성에 더 가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두 분 정도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넛지(nudge)’를 사용하시라고 권합니다. 넛지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 해’라고 드러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웬지 모르게 그렇게 가고 싶도록 옆구리를 살짝 찔러 주는 것을 말합니다.

34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넛지가 뭔지 아세요? “너, 앞으로 오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업체 임원 중에 “내가 굳이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분을 보면, 저는 “상무님, 여기서 은퇴하셔도 앞으로 40년은 더 일하셔야 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요?”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70~80년대에 미국에서 여성들이 막 사회에 진출할 때 남성들끼리만 일을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나온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여성이 남성 보스에게 “부장님, 저 내년에 만 보실 거 아니잖아요. 한 30년 저랑 같이 일해야 하는 것 아니죠?” 하면, 상대방이 긴 시간에 대해 생각하며 다양성을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넋지로부터 출발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볼 시간이 많다 이런 암시를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다양성과 안전에 대해 답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학에는 이성 보다는 감정이 더 힘세고, 감정보다는 감각이 더 힘이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에서 상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라고 했더니 다양한 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좀 꺼림칙했던 거죠. 그래서 훨씬 감각적인 이야기를 했죠.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탕비실에서 양치질하는 부장을 보면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서장에게 바란다는 이야기가 200개나 나왔습니다. ‘부장님이 제 의견을 무시 하세요.’는 논리적인 문장입니다 ‘제가 힘들어해도 부장님이 잘 안 봐주세요.’, 이것은 감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부장님 발에서 냄새가 나요.’, 이것은 감각적인 이야기예요.

사람을 다양하게 만들려면 냄새, 소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본

능적인 것에 대한 점잖음부터 깨 버려야 합니다. 그걸 깨 버리면 의외로 어떤 말을 해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소리, 냄새, 이런 것이 사람들을 만날 때 진짜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방귀 튼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끼리. 그런 식의 아주 가볍고 사소한 것이지만 한 번 쓱 건드려 주면 훨씬 편하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주제를 꺼내기 쉬워집니다.



Intermission: 다양성 영상 'The Values of Diversity' 상영

사회자

강연의 여운을 가지고 다음 순서로 가 보겠습니다. 2부 대담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상영하며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경일 교수님 강의 내용 중에 '다양성이 미덕이 아니라 역량'이라고 하신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도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다양성이 왜 역량인지,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성의 가치가 대학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영상(animated infographic)입니다. 입장하실 때 작은 소책자를 나눠 드렸는데,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에서 매달 두 편의 다양성 관련 글을 모아서 펴내는 『Diversitas』예요. 그동안 실렸던 글 중에 물리학자이신 성균관대 김범준 교수님이 쓰신 것이 있습니다. '다양성의 물리학'이라는 좀 어려운 제목의 글인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작은 '스튜디오 홀호리'에서 해 주셨어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e Values of Diversity 영상(한글)



The Values of Diversity 영상(영어)

2부 - 대담

음악에서의 다양성

사회자

두 대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이신 진은숙 감독님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시고 여러 가지 공연도 기획을 해 오셔서 그 이력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조은아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교수이시고 피아니스트이십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공공 분야에서 음악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분이죠.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와는 저희가 펴내는 소책자 시리즈 『Diversitas』에 저자로 참여해 주셔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부에서 김정일 교수님이 다양성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2부에서는 ‘우리는 왜 하필 2022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할까?’, ‘음악과 다양성의 관계는 무엇일까’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벼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통영국제음악제 소식을 듣고 관객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두 가지를 꼽자면 진은숙 작곡가님이 새로 예술감독을 맡게 되셨다는 점, 그리고 음악제의 주제가 ‘Vision in Diversity’로 정해졌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주제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제 전면에 제시한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감독님께 이런 주제를 선정하신 배경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2022 동영국제음악제

TIMEF

VISION IN DIVERSITY

Unrick Chin
Artistic Director

2022.11.25-4.3



NH





‘Vision in Diversity’라는 주제에 대해

진은숙 이번 주제를 정한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음악과 가장 가까운 이유를 대자면, 제가 이 직책을 맡은 뒤 한국 문화의 흐름에 대해 많이 고민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 사회에 문화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을 찾은 거죠.

44

우선 한국인들의 성향을 분석해 봤는데, 흔히들 클래식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현대음악이나 새로운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전의 것까지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연이나 예술 행위를 할 때 한 가지만 선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장르를 선보이고, 시대를 넘나드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한 덩어리로 모아서 연주할 때,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도나 청중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훨씬 커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진은숙 예술감독

사회자 조은아 교수님은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은아 방금 사회자께서 음악계에서는 다양성이라는 주제가 낯설다, 친숙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음색을 늘 청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각양각색의 선율과 화성의 입체적 층위가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음악인들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진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시대, 장르, 편성을 아우르면서 스스로 음악적인 주제 의식을 표현하기 마련이니까요. 이번 통영음악제

도 르네상스 시대의 마드리갈부터 2020년대 현대 창작 음악까지 6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고, 다양한 삶,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문화를 악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다양성이란 주제가 낯설지 않게 다가왔어요. 예년의 통영국제음악제도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메시지로서의 다양성을 음악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위 약자나 소수자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음악이 어떻게 공감과 포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은 음악인으로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바뀌서 생각해 보면 음악에서는 늘 다뤄 왔던 서로 다른 소리를 아우르는 다양성, 입체적인 소리의 조화, 이런 주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장될 계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자신만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을 열고 서로 다른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음악적 미덕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이번 통영국제음악제가 일깨울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음악 자체가 가진 다양성

사회자 지금 조은아 교수님께서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주제를 음악적 주제로 삼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음악 자체가 원래 다양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Diversitas』에 예전에 써 주신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 공동체’라는 글에서도 연주자 입장에서 독주할 때와 실내악으로 같이 연주할 때를 비교해 주셨죠. 여러 악기가 서로 어우러지고, 연주자들이 서로의 소리를 경청하며 연주하는 실내악의 아름다움에서 다양성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의미를 발견하신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과 서로 다른 선율, 화성, 리듬의 조화라는 음악 그 자체의 다양성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은아 교수

조은아 이번에 통영 음악제에선 바이츠(Veits) 목관 5중주, 노부스(Novus) 현악 4중주 같은 친숙한 편성부터 라셔(Raschèr) 색소폰 콰르텟, 스베틀린 루세브(Svetlin Roussev)와 테디 파파브라미(Tedi Papavrami) 같은 흔치 않은 조합까지 다양한 실내악 공연을 만나 보실 수 있었는데요, 실내악은 악기를 만드는 재료의 물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주법이 나 음역, 음색도 제각각입니다. 개성이 다른 다채로운 악기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하나의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것이 실내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모를 확장한 사회적 생명체인 오케스트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사회적 생명체라고 볼 수 있죠.

오케스트라나 실내악이나 자기 파트만 열심히 연주한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음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립된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악기와 협업을 해야 하는 거죠.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 즉 화합이 필요한데요. 서로 다른 파트를 끊임없이 경청하는 게 오케스트라나 실내악 같은 앙상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차이, 이질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나의 개성과 자유를 오롯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독주도 마찬가지라 모든 음악에 공통된 사항인데요, 음악에서는 주선율 같은 강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약자의 침묵, 그러니까 첼로의 침묵까지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에요. 그래서 소수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다양성의 사회적인 메시지를 음악의 침묵, 첼로의 의미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첼로의 의미까지 담아 주시니 정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조은아 교수님은 연주자의 입장에서 다양성의 의미를 음악에서 찾아 주셨는데, 이번에는 진은숙 감독님께 창작자의 입장을 여쭙보고 싶어요. 특히 진 감독님은 서양음악의 전통에 뿌리를 둔 작업을 해 오시면서도 한국의 전통 소리나 음악적 요소를 차용해 결합하는, 그야말로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다양성을 가지고 작업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음악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지, 창작자로서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진은숙 작곡가로서의 창작 활동에 앞서 예술가가 태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배경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예술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다양성이라는 걸 자유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 경험을 보면, 80년대에 한국을 떠났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어요. 모든 면에서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예절 등이 굉장히 일률적이었죠. 그런 사회를 떠나서 독일에서 오래 살았고, 특히 베를린에서 수십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독일에 있지 않았다면 작곡가 진은숙이 태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톨레랑스(tolerance, 관용)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 때만 해도 이웃에 외국인이 없고 모든 게 똑같았는데, 독일에서는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국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외국인이었

죠. 외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다양한 것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였어요. 거기에서 살면서 창작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술 문화 분야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나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 모든 면에서 다양함이 인정되고, 자기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인내심과 톨레랑스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더하는 음악의 새로운 시도들

사회자 말씀을 듣다 보니 아까 김경일 교수님 강연에서 기업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연결되면서, 단지 문화에서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뿐 아니라 전자 악기를 고전음악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음악적인 소리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바탕으로 환경 안에 있는 사운드를 음악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잖아요. 그런 작업이나 그런 음악에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은숙 그런 시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음악이라는 게 순수한 악기 소리로 된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작품들이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물론 훌륭한 음악이죠. 그런데 그 이

후 현대음악에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정말 음악이 무엇이나 하는 아주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작곡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자기 음악을 쓴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존 케이지(John Cage)의 경우는 스스로 ‘음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으로 아무 연주도 하지 않는 <4분 33초> 같은 작품을 만들었죠. 훨씬 뒤에는 전자음악도 나오고 뮤직 콩크레트(Musique concrète)도 나오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물건에서 나오는 소음을 이용해 작곡을 한다든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해서 음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진 상황입니다. 음악의 장르나 형태의 폭이 이만큼 넓었던 시대는 아마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새로운 미학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더욱더 참신하고 창의적인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음악과 다른 분야의 협업과 소통

사회자 음악 자체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진 감독님, 2013년에 음악과 수학 간의 규칙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수학자들과 협업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음악과 다른 분야와의 협업, 소통이 음악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54

진은숙 당시에는 협업이라기보다는 강의를 같이 한 것이었는데요, 수학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요. 사실 음악이라는 게 논리적인 면 등에서 수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희는 ‘수학이 끝나는 부분에서 음악이 시작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음악을 쓰면서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실제 전자음악을 할 때에는 수학적으로 음을 생각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고, 또 기술적으로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곡가로서 제 작품을 만들 때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수학과 김민형 교수님도 함께하셨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말씀하시고, 참가한 분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수학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는 물리학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관심이 있어서 물질의 물리 현상 같은 것을 음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자 이번 다양성 토크 콘서트의 포스터도 소리의 파장을 사용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를 듣고 보는지 감각 지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인데, 사실 음악도 다 소리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거기에 물리학적인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과 예술이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음악과 다른 분야와의 협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은아 교수님도 인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음악가로 알려져 있으시고 다른 분야의 분들과 협업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여쭙보고

싶습니다. 진 감독님께는 그런 협업이 음악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여쭙았는데, 이게 음악에만 좋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음악과의 협업이 다른 학문이나 사회 분야에 미치는 의미가 있을까요?

조은아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할 즈음 방향을 거듭하는 상황을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분야로 진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께 음악가들의 장점을 이렇게 적극 홍보하곤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답변이나 코멘트를 이어 가잖아요. 그런데 음악에서는 두 개 이상의 성부가 동시에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 작품을 많이 들으면서 입체적인 성부를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견해를 듣고 동시에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고가 장점인데, 음악에는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없어요. ‘반드시 무엇이어야 한다.’, 아니면 ‘이것이 옳다.’ 하는 식의 지

식이나 논리가 우위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연주자는 언제든 무대에서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검열, 검손이 몸에 배어 있죠. 무대에서는 온갖 돌발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음악인들은 다사다난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상에서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또 작품을 완성하는 끈기, 세심함을 놓치지 않는 디테일에 대한 완벽주의도 철저히 몸에 배어있고요. 음악대학을 졸업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턱없이 부족하죠. 아쉬운 것은, 국문학과 졸업생이 전공과 무관한 식품회사에 취직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음대 졸업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악가들이 연주 이외의 역량도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악계 구성원의 다양성

사회자 관객분들의 호응이 아주 대단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악계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생태계인데,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나, 인적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클래식 음악계는 특정 계층, 성별, 인종 등의 면에서 다양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한 작곡가들을 떠올려 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진 감독님,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독일로 건너가 활동해 오셨는데, 개인적인 음악 여정을 두고 보실 때 음악 생태계에서 사람들의 다양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8

진은숙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80년대, 독일 생활을 처음 할 때만 해도 클래식이나 순수 음악 창작계는 전부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작곡가들은 역사를 봐도 여성 작곡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여

자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시 여자들이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20~30년간 굉장히 바뀐 것 같아요. 여성 작곡가들도 많이 나와서 숫자만 따져 보면 거의 비슷할 정도가 되었고, 연주자들은 그 전부터 여성 비중이 높아졌고요.

예전에는 비엔나 필하모니나 베를린 필 등 외국 우수 오케스트라에서는 절대 여성 단원을 받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약 30년 전부터는 꾸준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녀 비율만 볼 때에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섞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능력 있는 여성 음악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 지휘자들도 많이 부상하고 있지요. 또 요즘, 특히 유럽에서는 인종 문제도 생각해서 흑인 연주자, 흑인 작곡가들 쪽으로 더 눈을 돌리고 콘서트하우스 같은 데서도 프로그램의 비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 그러니까 여성이나 흑인, 비유럽 출신 음악가 등 그런 사람의 비율을 정해 놓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비율이 없어지고 정말 능력에 따라서 구성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인종, 국적,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다 골고루 기회를 갖고, 그런 분들이 초청을 받아 연주를 하는 그런 날

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제가 조은아 교수님께 드리려는 질문 쪽으로 답변을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별이나 인종, 이런 것을 꼭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음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음악성이 기준이 되면 된다.’, ‘다른 인적 구성을 고려하는 것 자체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 역시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0

조은아 통영의 무대에 오른 음악가들은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은 창작적인 소수입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시도라고 느껴진 지점은 아직 한창 성장 중인 젊은 음악인들을 과감히 발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손현준, 장은호, 이성현 등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고, 그 중 이성현은 이제 14학년 대학생에 불과한데도 TIMF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었죠. 젊은 지휘자들도 실제 오케스트라를 무대에서 이끌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정말 힘든데, 어제 KBS교향악단을 지휘했던 윤한결이라는 지휘자는 작년 서울에서 열린 지휘자 국제 콩쿠르를 통해 발탁된 인재였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저에게 참고하라고 전해주신 기사가 있었는데요. 단원이 모두 흑인으로 구성된 런던의 치네케(Chineke!)오케스트라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음악계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대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창단했던 거죠. 클래식 음악계가 소수자를 포용하는 데 인색하다는 진단에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요즘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100명 중 3명을 소수자로 채용하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60%가 취약 계층 출신이잖아요. 저와 함께 통영음악제를 찾은 지인이 묻더군요. 음악제의 제목을 ‘다양성’이라 붙였는데 조직이나 인적 구성부터 어떻게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지점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실 다양성의 보장은 효율이나 경쟁에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 비용도 많이 들고, 구성원이 다양해져서 복잡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국제음악제가 기왕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화두로 던졌으니, 미래 방향성을 선도하며 작곡가, 연주자뿐만 아니라 실무

진까지 차별이나 소외, 불평등 없이 다양성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김채연 위원장

■ 더 포용하기 위한 음악의 변화

사회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관객들이 주신 질문을 조금 더 받아도 될까요? 먼저 진 감독님께 드리는 관객의 질문입니다. 시·청각장애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콘서트의 노력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뭔가 효과가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연 현장의 사례가 있을까요?

진은숙 한국 내의 상황은 아직 잘 모르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 하는 사람, 특히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인지는 제가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런 교육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리드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죠. 장애아를 위한 음악교육의 커리큘럼이 대학에 있

는지 모르겠어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인력이 배출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제가 감각 지각 연구를 하고 있고, 음악과 미술에서의 지각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해서 다른 사례를 소개드리면, 미술 작품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각장애인들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향유하는 건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각 말고 소리로 작품을 설명해 준다든지, 아니면 3D프린터로 모델을 만들어서 보지는 못하지만 촉각으로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음악의 표현을 뭔가 다르게……

진은숙 진동으로 느끼게 한다든지요.

사회자 네, 맞습니다. 촉각으로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컬러로 그걸 표현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sensory substitution, 감각 대체라고 불러요. 내가 쓸 수 있는 감각으로 다른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음악제에서도 감독님이 음악을 영화나 다른 시각적인 포맷으로 전달하는 시도를 담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도 연관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 교수님께 ‘일상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신 관객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서 다양성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마음에 깊이 담고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꼭 생각해 볼 만한 물음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세

조은아 일상에서 다양성을 충분히 수용하는 역량과 인성을 저 스스로 갖추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다양성과 관련한 책들을 펼쳐다 보니 ‘귀를 열고 마음을 연다.’라는 문구를 자주 발견하게 되더군요. 지 키기 어려운 미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음악을 통해 서라면 그런 능력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기도 했어요. 귀 기울여 듣는 경청과 다양한 성부의 조화, 차별과 소외가 없는 앙상블 등의 음악적 요소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일깨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다짐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진은숙 저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제가 대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이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대담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오케스트라 소리를 들으시면서 연주자들이 어떻게 서로의 소리를 듣는지,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남은 통영음악제도 다양성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성의 파라곤(paragon),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19년 국내 사립대학 최초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립된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교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며, 다양성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문화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다양성 역량을 바탕으로 대학 및 학교 밖 사회에 알리고
확산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통영국제음악재단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아트 마크먼 교수의 지도하에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연구했다. 아주대학교 창의력연구센터장을 지냈고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대학과 각종 교육기관, 기업에서 왕성하게 강연하고 있으며 <어쩌다 어른>, <세바시>, <책 읽어드립니다>, <나의 첫 사회생활>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세계의 다양한 학자들의 난이도 높은 연구 내용을 대중들의 삶과 연결시키며 지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진은숙

작곡가,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함부르크 음대에서 거장 작곡가 죄르지 리게티를 사사했고, 2004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작곡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그라베마이어상을 받으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비롯 앙상블 앵데르콩탕포랭, 앙상블 모데른 등 현대음악 전문 악단들이 작품을 위촉 및 연주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연기획자문역을 맡으며 현대음악 시리즈 '진은숙의 아리스 노바' 공연을 기획해 한국의 현대음악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은아

피아니스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예술감독 역임. "음악적 깊이와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보기 드문 연주자"란 평을 들으며 연주뿐 만 아니라 음악관련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쳐왔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음악 분야 첫 강연을 진행 했고, 한겨레의 '문화현장', 경향신문의 '세상 속 연습실'을 거쳐 현재 한국일보에서 '조은아의 낮은 음자리 표'를 연재 중이다. KBS 클래식FM 방학특집, 서울시향 토크 콘서트, KBS 교향악단 실내악시리즈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진행하며 2018년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Diversitas List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창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중훈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법법칙인가,
가법법칙인가? _ 서명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범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량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려난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윤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정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다어장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14호

말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켜는 혹은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인영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한정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16호

생활튼: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_ 조경숙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_ 조은아

17호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_ 김승수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_ 김설아

18호

장애의 사회·문화적 구성: 다문화 교육과 장애 _ 조주희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 가치 확립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 _ 장대익

19호

성평등, 교실에 닿다: 다양성과 예민함을 배우는
교실 꿈꾸기 _ 김수진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작하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교육 _ 황고운

20호

사회혁신이란 나무는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내 안의 다양성, 내 밖의 다양성 _ 이해영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와 다양성의 필요성:
교육 복지 생태계를 중심으로 _ 아리현

21호

세계의 끝 윈더랜드, 책들의 이상향을 찾아서 _ 백창화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책의 귀환이라는 기현상 _ 안병일

22호

Behind the scenes:
2021 고려대학교 다양성 조사와 보고 _ 김재연
다양성(Diversity)으로의 변화,
조직의 다양성 수준을 측정하라 _ 양윤재

23호

조선 시대 궁중 회화의 다양성:
조선 후기 궁중의 그림 병풍과 이국 취미 _ 윤민영
시공간에 대한 예술가의 세 가지 시선 _ 신수진



KU Diversity



새로운 Diversitas 웹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친화적인 e-book 형태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iversitas.kr>

Diversitas

권호	24호
발행일	2022년 5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녹취·구성	강윤하 · 김진영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www.saisiot.co.kr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